

에게까지 순수하게 왜곡 없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그 명성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진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일세.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들판에서 온전한 상태로 꺼낸 저 조각상들, 땅 밑 깊숙한 곳에 파묻혀 있었기에 야만인들의 포악을 피할 수 있었던 저 조각상들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잘 알겠지, 문(文)으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명예를 얻으려면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자네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명예가 프랑스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 사람들이 문인들을 꽤나 걱정해주는 것은 사실이네. 그쪽 학식이 있다고 해서 고향에 가면 고위직이 마련되는 것도, 정치권력이나 궁정으로의 진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야. 부와 향락 말고는 어디에도 관심이 없는 금세기에 있어서는 누가 박해받는 일 따윈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지식이나 덕성이 특출한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닐세. 국가로 들어오면 모든 것은 돈으로 값이 매겨지니까. 옛날에는 성직이나, 사법직, 행정직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확실한 보상을 얻었지만, 오늘날 문인들은 그저 책을 만드는 역할 외에는 아무데도 쓰임새가 없어진 게야. 그러나 그 결실이란,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주는 일은 없더라도, 늘 자신의 기원(起源)을 천상에 두어 온당한 것이지. 그래 어두컴컴하게 가려진 덕성에 빛을 비추고,